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34호 【무게 제26208호】 주제 107 (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자연군구리기를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자연군구리기를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건설경제공업성 산하단위 지체인 김득삼은 로력영웅으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온 당의 크나큰 신임에 응징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상군을 꾸미는 사업에 깨끗한 공민적 양심을 바치셨으며 맑은 혁명과업수행에서 당정책집행관으로서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가고 있다.

은 너로한 몸이지만 남편과 함께 10여차 메나 건설장에 찾아가 경제선봉도 벌리면서 돌격대원들의 권유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돌격대에 탄원한 국가종합체육단 로동자 국향, 체육과학도시관 번역원 김은이, 수산성 무역점에 선원 김금룡은 돌격하는 진주장에서 구슬땀을 바치면서 공사를 돕는 일로서로 찾아하였다. 혁명의 성지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 갈 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내각사무국 로동자 김기옥은 삼자연군을 혁명전봉요양 대로원박물원으로 전변시키는 사업에 헌신하고있으며 지원사업도 잘하여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제영아도 삼자연군구리기에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며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뜨거운 열혈의 정을 기울이고있다.

지난 기간 사회와 정당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려는 국가출력감독위원회의 중앙수출입검역사격역소 출력감독원 신현주, 모란봉구역식료품종합상점 로동자 추미라는 성의있는 지원으로 삼자연군구리기에 펼쳐나선 건설자들을 힘껏 도와주었다. 평안북도체육지도위원회 문서진 협정현, 천내관용 로동자 강성보는 북방의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서도 불굴의 정신력과 드넓은 공적력으로 남마다 비약의 촉진을 일으켜나가는 돌격대원들에게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의 크나큰 격정속에 맞이받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성지를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모은것을 다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27일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을 공식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대통령이 전달하였다.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27일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을 공식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대통령이 전달하였다.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27일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을 공식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가 20일 단마르크의 피해하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공동위원장 장로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헨리 야블렌,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선원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단마르크주제사상연구소 책임자 모덴 펠이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주에 즈음하여 그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주에 즈음하여 그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계속 전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면에서 활성화의 열매를 맺어내야 하겠읍니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계속하기 위한 총동원전에 열의로운 승리를 거두기 위하여 평양 3.26 전선공장, 안주철연물공장, 함흥에 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계속 전진해나가고있다. 철연공장과 공무직장, 전선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며 맑은 생산과제를 이기없이 수행하였다. 본사기자 김국현

철강, 유기질강을 생산하여 대고전투를 벌이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부문에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 공장에서는 중산동적전을 파격히 벌려 세형의 프라드, 자동차도색에 필요한 칠감도 편만히 생산보장하였으며 경제적으로의 큰 방축방습제도 개발생산하여 여러 화력발전소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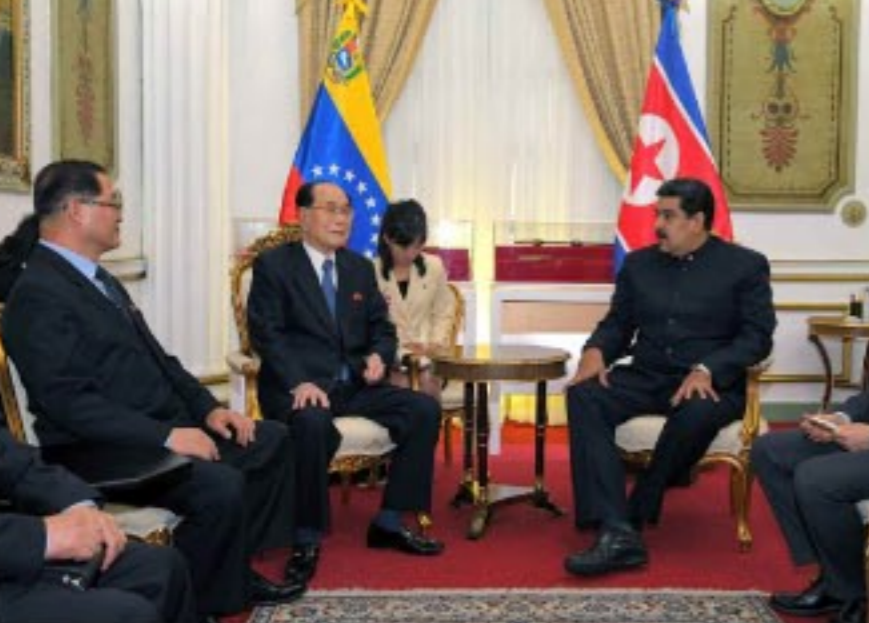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각하사이의 회담 진행

【카라카스 11월 27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을 공식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각하사이의 회담이 27일 오후 대통령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대통령각하에게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였다. 대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신 선물과 베네수엘라공화국과 인민의 동지적이며 형제적인 인사를 전하였다.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대통령은 김정은동지께서 전강하시어 조선인민을 승리적으로 영도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하면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력관계가 앞으로 더욱 활력있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김영남동지는 조선과 베네수엘라사이의 관계는 진실하고 친근한 벗, 진실한 동지적관계로 발전하고있다 하면서 만 제자주, 단견평화, 사회주의를 위한 베네수엘라인민의 투쟁은 힘있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함경남도수산물관리국에서 물고기잡이성과 련을 확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산부문 일군들은 대담하게 결심하고 탐관노릇을 없애고 끝까지 잡을 수 있는 신심을 가지고 드넓은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투쟁에 용감히 나서야 합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산동적운동에 한사함 없이 펼쳐나선 함경남도수산물관리국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항기가 차던치게 할 일념으로 물고기잡이 전투에서 기세를 올리고있다. 총합된 자력으로 의하면 관리국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동해의 중심 어장에서 집중어로를 펼칠 계획으로 지난 29일 현재 겨울철물고기잡이계획의 86%이상을 돌파하였다.

단마르크의 피해하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공동위원장 장로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헨리 야블렌,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선원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 단마르크주제사상연구소 책임자 모덴 펠이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7주에 즈음하여 그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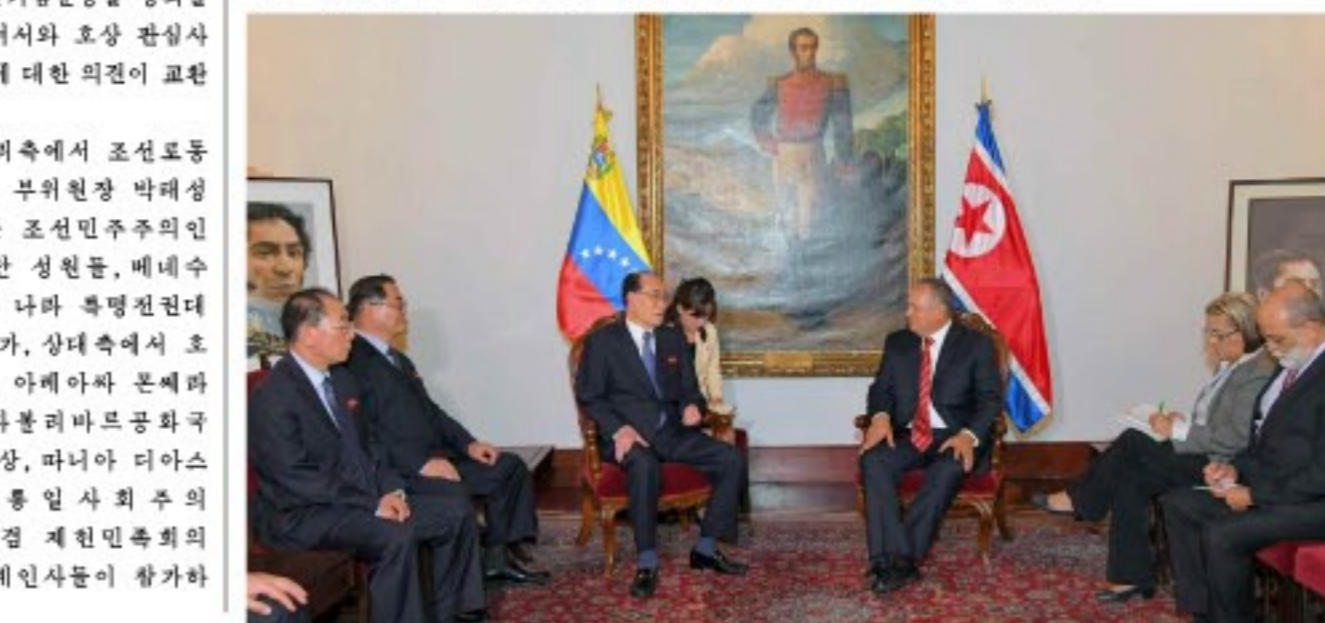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베네수엘라볼리바르 공화국 제헌민족회의 의장을 만났다

【카라카스 11월 27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을 공식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7일 디오스다도 까벨로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제헌민족회의 의장을 만났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성원들, 베네수엘라주제사상연구소 리승길동지와 김영남동지, 제2부부장 클라리스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표명인 유리가 안치되어있는 라몬 마나병원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은 베네수엘라민족회의에 환대를 진정하였으며 우고 차베스 프레이스 전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대통령의 유해가 안치되어있는 라몬 마나병원을 찾아 경의를 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성동지를 비롯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성원들, 베네수엘라주제사상연구소 리승길동지가, 상해에서 초평화, 사회주의를 위한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인민정권 의부상, 파리아 디아스 베네수엘라 통일 사회주의 당 부위원장 겸 제헌민족회의 제1부의장,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동력으로 혁명의 전진을 가속화하자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도전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동원, 경제건설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동력운동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단위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과시하는 창조불꽃이 번이어 솟아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데 대한 뚜렷한 증거이다.

우리 당은 주제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을 다룬데서 찾지 않는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때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후손한테 영원한 번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지론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자력갱생을 백중의 보검으로 돌리려고 이 땅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다.

1

우리 당은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진회의에서 혁명의 전진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도전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조성된 정세하에서 그리고 우리 혁명전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과학적으로 반영한 가장 정확한 혁명도전이다.

우리가 당의 요구대로 혁명의 전진속도를 가속화해나간다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야 한다.

경제는 하는 최고 명도 자력갱생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길러야 자기 앞길을 개척해나갈 때에만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최후의 승리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혁명은 당보가 아니라 전진이며 비약이고 혁신이다. 승리에 자만해 보려고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혁명가들이 가속화의 기치를 들 수 있고 그 어떤 난관도 두려움없이 맞받아 뚫고나가는 인민만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가속화와 자력갱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가속화가 혁명의 전진속도를 의미한다면 자력갱생은 그 실현의 근본담보이다. 혁명투쟁에서 전략과 전술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간 사람들이 발휘하는 사상정신적위력은 한계가 없으며 자기 인민의 힘, 불굴의 혁명정신이 의거해야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한다는 전리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우리 혁명은 자력갱생으로 시작되

고 자력갱생으로 승리혁명을 위대한 혁명이다. 방위산업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연길복합정원에서 자력갱생의 전통이 마련되고 불멸의 영웅사사시가 수놓아지게 되었다. 우리 인민이 전후 제데미에서 원미정신을 창조하고 속도전의 진풍나팔소리가 울려퍼지는 일대 전성기를 열릴 수 있었던 것도 자력갱생의 신념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며 1990년대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국건설의 본초한 도약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자력갱생의 신념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며 1990년대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국건설의 본초한 도약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자력갱생의 신념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 어떤 의욕적인 지원에 기대를 걸고 동원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비약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혁명의 년대들에 태어난 모든 시대가들은 다 자력갱생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현실이 우리앞에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비약적전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앞당겨 결명해야 할 투쟁과업이 나사고있다. 이 당면한 목표를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 것을 세계가 지켜보고있다.

혁명은 당의 위대성은 시대의 앞길을 뚜렷이 밝히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저에 있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으로 이끄는 현명한 명도에 있다. 우리 당은 오늘의 총진군에서 승리의 담보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뚜렷이 밝히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전방에서 이끌고있다. 당이 제시한 자력갱생전략에는 조건과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사회주의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으로 이끄는 건전한 혁명적전진성과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해나갈 수 있는 기적창조의 모술이 담겨져있다.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높은 목표를 성과적으로 결명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 수 있게 한다는데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있다.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이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비약의 전략이다.

우리 당의 주동적인 발키와 노력에 의하여 지금 우리 혁명앞에는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고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전혀 상상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었던 국제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고있다. 그러나 대외적환경이 개선되고있다고 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자금과 자재가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의 강함과 리기적목적에 따라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파우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남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누구도 우리가 강대해지고 잘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유리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할 줄 알아야 하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 조건과 환경이 달라져도 일관하게 전진해나가야 하는 혁명방식이 바로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드는 것은 세계와의 교류와 협조가 활발해지길 될 때에도 매우 중요하다. 이때에도 세계에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자기의 새롭고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우수한 자기의 것이 없으면 기술의 노예가 되어 존엄도 잃고 남의 배반 제위주체가 된다. 우리는 자기의 무력과 기술로 국가경제력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고 그 위력에 도태하여 나라를사이의 대외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경제건설대진군에 막자를 가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주전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선택한 길로 뚜벅이 나아가려는 주체의 신념이고 자기의 피와 보루를 자기의 힘으로 실현해나가는 불굴의 정신이고 일단 걸심한 것은 하물이 무너져도 제 기한내에 거머쥘 수 있는 담대한 배양이다. 수도리적 운수구 일꾼들과 도동제급이 현대적인 무거운전차와 궤도전차를 만들어내고 남포대경수산사업소의 도동제급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만능어선인 쌍선체고기배를 무어내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강했기 때문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력갱생의 길은 세월을 주름잡아 울리는 미래를 앞당겨오는 지름길이다.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성과의 비결은 대중의 심장속에 있고 새 기준, 새 기록창조의 열외도 대중자신의 손에 쥐여져있다. 그 어떤 정세하에서도 흔들림없이 혁명을 떠밀어 나가는 제일가는 무기가 바로 자력갱생이다. 우리는 시대와 역사가 증명한 이 진리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나갈 수 있는 부흥의 전략이다.

자력갱생의 의미를 조성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만 보는 것은 자력갱생에 대한 헛소신식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당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건설이나 나라의 전반분야를 자력의 힘으로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려세우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난보는 말릴 것도 없고 교육과 보건, 문화예술,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이 타올라야 불멸의 강국이 일떠서게 된다.

사회주의건설의 그 어느 분야에 서나 구현하여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주체의 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이다. 하나의 기제설비를 만들어도 자기 지혜에 의지해야 하고 하나의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도 자기의 고집이런 담구를 기울여야 하며 우송의 금메달도 자기의 피라는 노력으로 들어올려야 한다. 대고조선군의 모든 참전자들이 자기의 힘과 지혜를 쟁그려 싸우며 사회주의건설전반에서 다 같이 눈부신 성과를 안아오게 하는데 우리 당의 자력갱생사상의 숭고성이 있는 것이다.

최단기간내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기치를 추켜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이것은 결코 한 장대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전후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하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우려 한 인민이며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의 20세기의 문예부흥기를 펼치고 체육과 교육, 보건, 건축분야에서 눈부신 기적을 안아온 인민이다. 우리 당이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기에 어느 한두 분야도 아니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비약적전진하는 기치를 높이 추켜는 것은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현에서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오늘 대고조선전쟁물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기어이 집행하기 위한 중산동력운동의 불길이 세계를 타나고 교육과 보건부문에 있어서 사회주의 제도의 유월성을 더욱 높이 앙양시키기 위한 사업이 일고계 발이고 있으며 건설의 대변명기가 펼쳐지고 있다. 우리의 세뇌는 과학자, 예술인, 체육인들도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남겼음이 떨치고있다. 오늘날의 시대아래 자력갱생으로 부흥하는 나라, 우리 인민의 강인한 정신력이 총폭발되는 격동의 시대이다.

자력갱생으로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앞에는 풀없이 밟은 전도가 펼쳐져 있다. 우리는 오늘의 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반드시 실현으로 증명할 것이다.

2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진보성이 울린 때로부터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장구한 인류사에서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나날은 우리 조국이 세인을 경탄시키는 신화적인 기적의 역사를 창조한 자랑찬 보람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명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기의 피와 담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인민의 전진을 그 무엇으로 막을

가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7년간의 투쟁이 보여주는 필비이다. 경제는 하는 최고 명도 자력갱생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쉼없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길입니다.》

자력갱생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게 하는 강위력한 무기이다.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자주적존엄은 생명과 같다.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려면 나라가 강해야 하며 강국건설업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믿음직스럽고 빠른 길은 자제의 힘과 기술, 자기 인민의 정신력에 의지하는 데 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지키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겪은 시련과 난관은 수백, 수천번의 책에도 다 담지 못할 것이다. 이 길에는 전성이나 평화나 하는 형에 따른 시련도 있었고 남포 약탈해치는 적대세력들의 횡포도 또한 계속되는데 하여 인민들이 처절한 고생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나날도 있었다. 비신 한두 분야도 아니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비약적전진하는 기치를 높이 추켜는 것은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제의 힘과 기술, 자기 인민의 정신력에 의지하는 데 있다. 우리는 자제의 힘과 기술, 자기 인민의 정신력에 의지하는 데 있다. 우리는 자제의 힘과 기술, 자기 인민의 정신력에 의지하는 데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일선 기술도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와의 기술교류도 활발히 벌려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협력과 교류도 반드시 우리 경제의 주제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데 있다. 우리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여도 우리의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을 더욱 강화하고 남겼음이 발양시킬 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자력갱생은 이력으로 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세 생활을 창조하였다.《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바로 이 구호로 주제사상을 구현하여 일떠세운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이 함축되어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를 전진시켜나가는 길은 자력갱생의 길이며 다른

자력갱생은 우리 경제가 주제화, 현대화의 길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위력한 추동력이다.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자면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 것과 함께 원료, 자재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지금 경제가 발전되고있다 차지하는 나라들도 원료, 자원의 고갈로 하여 심각한 진공을 겪고있다.

자립경제건설에서 무엇보다 중요 한것은 원료, 자재의 조달을 실현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는 하는 최고 명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실업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믿음직스럽고 빠른 길은 자제의 힘과 기술, 자기 인민의 정신력에 의지하는 데 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지키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겪은 시련과 난관은 수백, 수천번의 책에도 다 담지 못할 것이다. 이 길에는 전성이나 평화나 하는 형에 따른 시련도 있었고 남포 약탈해치는 적대세력들의 횡포도 또한 계속되는데 하여 인민들이 처절한 고생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나날도 있었다. 비신 한두 분야도 아니고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비약적전진하는 기치를 높이 추켜는 것은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제의 힘과 기술, 자기 인민의 정신력에 의지하는 데 있다. 우리는 자제의 힘과 기술, 자기 인민의 정신력에 의지하는 데 있다.

경제를 발전시키자면 일선 기술도 받아들이고 다른 나라와의 기술교류도 활발히 벌려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협력과 교류도 반드시 우리 경제의 주제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진행하는 데 있다. 우리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여도 우리의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을 더욱 강화하고 남겼음이 발양시킬 수 있게 하는 원칙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력갱생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자력갱생은 이력으로 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은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세 생활을 창조하였다.《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바로 이 구호로 주제사상을 구현하여 일떠세운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강대성이 함축되어 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를 전진시켜나가는 길은 자력갱생의 길이며 다른

같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의 몸이 다 큰 형의 피가 섞이면 생명이 위험하듯이 자기 식이 아닌 남의 식이 들어오면 우리 식 사회주의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되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은 각 방면에서 집요하게 감행되어왔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고 사회의존사상을 부식시키려는 끈질긴 사상문화침투책동, 역사에 그 료예를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제재책동, 다른 나라들과의 정상적인 과학기술교류와 무역활동의 완전차단을 비롯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적들의 책동은 이미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침투책동과 각종 우월한 주체의 사상과 문화로 단호히 격파하고 정치사상 선지를 철벽으로 다지였으며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적들의 제재책동을 과격하게 내디뎠다. 아무리 시련과 난관이 겹쳐도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적합동성능을 높이 발휘해나가는 것이 우리 인민이다.

오늘 강권도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속도로 되고있다. 강권도사람들의 가슴속에는 남에 대한 의존성과 수임성이 리들리들 없으며 자기기가 살아나갈 길은 자신이 개척해야 한다는 정신만이 팍 들어차있다. 바로 이러한 혁명정신이 원산군민정신소와 현대적인 양묘장을 보듯듯이 일떠세울 수 있게 하고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오늘 도가 부름부름 끊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생활상우와 지향, 정서도 달라져가야만한다. 이런 속에서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완수해나간다면 셋째도 둘째도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나가자. 이것이 사회주의승리의 법칙이고 공식이다.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은 우리가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며 우리의 제일 값비싼 재물이자 자립이다. 자력갱생의 기치가 변함없이 펼쳐 나날리기에 우리 조국의 위력은 날마다 더욱 강해져가며 우리 인민의 품과 리상을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전체 인민들은 경제는 하는 최고 명도자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진회의가 제시한 전진목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라 한다. 2018년 11월 30일

김영남 동지

김영남 동지 가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권발래르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원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 각하

나는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현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건투적인 사를 보냅니다.

최근 이스라엘강경자들이 감행하고있는 정착촌화장벽동과 인종차별적인 법령발포, 가자지대에 대한 봉쇄와 시위자들에 대한 탄압행위는 배반적인 행위를 되찾고 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고있으며 세계적인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두세계가해결책에 기초하여 동부부두드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를 창설하고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들을 쟁취하기 위한 당신과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로운 위업에 다시 한번 전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7(2018)년 11월 29일

인민을 위한 철신의 자욱

주제89(2000)년 5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총성한 식탁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새로 건설한 어느 한 메기공장을 돌아보시었다. 이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메기를 용인적방법, 집약적방법으로 기르고있었다.

공장의 시설들을 미소어민 시선으로 바라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메기공장으로 동당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의 모습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하시었다.

그이제 이곳 일꾼이 15명의 가정부인들이 한해에 수백1의 메기를 생산한다고 자랑스럽게

보고드러였다. 그러는 일꾼을 정정하게 바라보시던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그것은 간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못내 만족해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실재우기못들에 있는 메기들을 보시며 그야말로 볼 걸만, 고기 찐만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순간 일꾼들에서는 환성이 퍼져 울렸다.

우리 장군님께서 볼 걸만, 고기 찐만이라는 표현 한마디로 메기의 높은 생산성을 집약적으로 밝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실재우기못들이 원통식으로 되어있는데 메기양어를 집약화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시면서 더운물이 있는 온천을 이용하여 메기양어를 광범히 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몇 해 전 12월 어느날 경제는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주 찾아와 신발생산정황을 알아보셨다고 하시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또다시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셨다.

이날 경제는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생산정성화의 동용을 옹호하고 있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제는 하는 원수님의 문에 넘치는 시하여 일꾼들의 가슴은 무뎠어올랐다. 하지만 그 시각에도 우리 원수님의 심중에는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시켜주시기 위하여 생산정성화의 동용추진에 인민들의 요구, 인민의 이익을 생각하시며 이렇듯 고고 들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산정성화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

를 바로가져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의 기호에 맞지 않고 인민들의 요청을 받지 못하는 제품은 아무런 필요도 없이 버려지고, 생산정성화라는 개념에는 자기들이 만드는 모든 제품을 인민들이 직접 선호하고 애호하며 제일 먼저 찾는 제품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일꾼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지금껏 생산정성화라는 말을 생산계획을 이행, 순별, 월별, 분기별로 어겼었기에 수행해나가는 경제실무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왔기 때문이었다.

전진 인민에 대한 몹시부루를 배의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시는 경제는 하는 원수님시기에 생산정성화의 동용추진에 인민들의 요구, 인민의 이익을 생각하시며 이렇듯 고고 들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산정성화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

고 철 명



공장에 어려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공원에서- 본사기자 김광림 찍음

한편의 노래를 들으시며

하나의 공연을 보시고 한편의 노래를 들으시어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자애로운 어버이의 한평생이었다고 심장의 목소리를 리치는 것이다. 경제는 하는 최고 명도자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또다시 들려주시는 이 노래는 한편의 민중가요이다. 대중적으로 형성한 노래 《병사는 벼이삭 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붙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시기 여러 예술단체들에서 이 노래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행상하였지만 이번엔 형성한것보다는 다 못하였다고, 그 노래는 대중적으로 형성한것이 제일 좋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노래를 다시 들려보라고 하시었다.

노래 《병사는 벼이삭 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장에 다시금 울려 퍼졌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재정이라고 하시면서 한 대 부르라고 하시었다.

이렇게 노래를 또다시 들려주시는 이 노래는 한편의 민중가요이다. 대중적으로 형성한 노래 《병사는 벼이삭 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붙었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재정이라고 하시면서 한 대 부르라고 하시었다.

이렇게 노래를 또다시 들려주시는 이 노래는 한편의 민중가요이다. 대중적으로 형성한 노래 《병사는 벼이삭 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붙었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재정이라고 하시면서 한 대 부르라고 하시었다.

노래가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재정이라고 하시면서 한 대 부르라고 하시었다.

석탄전선이로 달리는 또겨울 애국의 마음

탄부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지난 11월 2일 여러명의 제육성 일꾼들이 평탄평을 찾았다. 이례는 구면인 탄광의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들은...

어머머가 흥했지만 진심으로 반갑게 도와주는 제육성 일꾼들과 종업원들이었다. 평탄평을 찾은 때부터 그리하였지만 그날도 일꾼들은 탄광을 기세 좋게 이끌어 갔다...

모, 생인평은 얼마이고 길진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석탄생명과 관련된 문제들을 상세히 알아보고 수습에 적어놓는 그의 모습은 탄광일꾼들의 심금을 울렸다.

은 나라의 맡아볼라게 석탄생산의 불길을 더욱 세지게 지켜 올릴 결의로 가슴을 울렸다. 제육성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은 언제나 누가 보지 않는 수월척지하막장에서...

평탄평을 찾은 때부터 그리하였지만 그날도 일꾼들은 탄광을 기세 좋게 이끌어 갔다. 이례는 구면인 탄광의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들은...

종업원들을 위한 진정한

강계세멘트공장에서 평탄평을 찾은 때부터 그리하였지만 그날도 일꾼들은 탄광을 기세 좋게 이끌어 갔다...

평탄평을 찾은 때부터 그리하였지만 그날도 일꾼들은 탄광을 기세 좋게 이끌어 갔다. 이례는 구면인 탄광의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들은...

평탄평을 찾은 때부터 그리하였지만 그날도 일꾼들은 탄광을 기세 좋게 이끌어 갔다. 이례는 구면인 탄광의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들은...

며칠전에 시험생산하여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비누들이 형태도 없이 무너져내린 광경 앞에서 순천탄부들자생산사업소의 종업원들은 허둥지둥 달려와서...

합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사업소에서 비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가솔린과 자재 등 길러오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였다. 비누원료의 감봉과 내뿜는 열기를 제거하고 비누의 세척효과를 높이며 끈기를 보충할 수 있는 기법만 착상들을 면이 내놓았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탄광지연사업에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평탄평 1평을 찾았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탄광지연사업에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평탄평 1평을 찾았다...



새형의 신발도안을 창작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간다. -유리분조장에서- 리명철 찍음

그들이 택한 길

순천탄부들자생산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평탄평을 찾은 때부터 그리하였지만 그날도 일꾼들은 탄광을 기세 좋게 이끌어 갔다...

순천탄부들자생산사업소 일꾼들과 종업원들. 평탄평을 찾은 때부터 그리하였지만 그날도 일꾼들은 탄광을 기세 좋게 이끌어 갔다...

우리분조장. 신천군 우물평농장 제9작업반 2분조장 류분조장은 20년 동안 분조장으로 성실하게 일해오고 있다...

불같은 충정 시어에 답하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 작품들을 보고. 대한 온 나라 인민의 불같은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우리와 한고정에 함께 계시고 나라 인민은 온갖 키우시면...

김남희동무가 평양학생소년궁전 태권도소조 지도교원으로 사임한 날은 5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간 그가 키운 제자들이 2014년부터 태권도소조원들의 청소년 및 조장대원들에게서 수련대회에 연이어서 참가하여 10여명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금메달이 비낀 소원

김남희동무가 평양학생소년궁전 태권도소조 지도교원으로 사임한 날은 5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기간 그가 키운 제자들이 2014년부터 태권도소조원들의 청소년 및 조장대원들에게서 수련대회에 연이어서 참가하여 10여명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위대한 평탄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인분사사업은 인민본사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하나입니다.》

인민의 기쁨속에 찾는 보람

그의 눈에 맑게 비추는 새 글자가 뜻있게 느껴졌다. 《은덕원》, 《도시와 원리》, 《산골마을에서》, 《장학생의 기쁨》, 《인민의 기쁨》, 《인민의 기쁨》, 《인민의 기쁨》...

불패의 생명력을 지닌 조선의 사회주의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해결하라

오늘 우리 조국 땅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우선과 최우선인 안이요기 위한 투쟁이 과감히 벌어지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려고 발악하지만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시 사회주의는 드넓은 대지에 깊이 뿌리박은 거목처럼 그 어떤 폭풍에도 끄덕없이 불패의 위력과 존엄을 단방에 과시하고 있다.

진보적인류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회망의 등대라 바라보며 정승과 천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이칠란드신문 《로에 파베》는 동방조선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래부터 오늘날까지 사회주의 기기가 변함없이 휘날리고있는것은 조선식사회주의가 주체의 인민, 인민정권이 구현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의 정권기관들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력의 대표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이익의 보호자이며 인민대중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고있다. 선대수령들께서 그러 하신것처럼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하는데서 본보기를 보여주고계신다. 조선인민이 사회주의를 생명으로, 생활로 간주하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며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디아특집학연구소의 위헌장 위원 글라바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령도자께서 일대세우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사회주의조선은 거대한 생명력과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넘김없이 과시하고있다. 김정은각각의 천명한 명도임에 오늘 조선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단방에 떨치고있다. 우리가 정한 길을 따라 보부당당히 나아가고있는 조선이야말로 국제사회의 선망의 대상이다.》고 자기의 소감을 밝히고 있다.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불패의 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되고있다. 하다면 그 불패성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조선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데 있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다.》

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세력권 사회제도도 각이하다.

나라마다, 정치가들마다 인민의 복리를 위한 정치, 인민대중의 삶을 보장해주는 정치를 실시한다고 광고한다. 하나 자본주의사회를 불어다보면 인간의 존엄도 운명도 이데도 모두 돈에 의해 지배되고 결정된다. 인간의 자주적이고 창조적 인 삶은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사회주의제도에서만 꽃피어날 수 있다.

인민의 이익을 제일 신성시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 우리 공화국이 야말로 인민대중의 참다운 삶이 꽃피고 인간적 자주적권리가 참답게 보장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 인민의 나라이다.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승의 마음이 그러도 열렬한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가 바로 인류가 세기를 두고 간절히 바라는 꿈이 현실로 꽃피고있는 파상사회이기 때문이다.

하다면 우리 공화국이 인민대중의 행복의 요람으로, 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는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흐르고있는것인가. 그것은 인민사랑이다. 인민을 세대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모든것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떠날때는 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은 인민의 세상, 삶의 보금자리로 빛을 뿌릴수 있는것이다.

중국 홍콩잡지 《국제관계》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의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가 건설된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헌신성을 버리는 영도자들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조선식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은 영도자들께서 지시하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영도자의 인민위원의 사상을 구현한 조선의 사회주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정지에 의해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파오스너성 대변인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방문의 나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의 인민중심정책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진솔하게 접근하고 환복하고 최선실사비율이 그흔히

일본에서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는 끔찍한 살인범죄가 매일 같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시마네현에서 손자가 함께 살고있는 할머니를 살해하였다. 범인은 할머니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였다.

8일 새벽 오이다현의 한 민가에서는 82살 난 친을 남편이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같은 날 이시카와현에서는 손자가 71살 난 할머니를 살해하였다.

제포된 범인은 《내가 할머니를 죽였다.》고 자백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들은 모두 혈육간에 벌어진 살인행위들이다. 자식이 어머니를 때려죽이고 남편이 처를 폭행하다가 손자가 할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것과 같은 살인범죄들은 악육강식의 생존법칙이 지배하는 일본과 같은 썩은 사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것이다.

극단한 개인이기주의와 인간중요사상을 깨뜨려 버려져야 하는것이고있는 《분명》을 떠드는 일본사회의 진면목이다. 온갖 사회악과 만인물적범죄가 범람하는 일본은 범죄집단이 헤아릴수 없다. 일본 오사카부에서는 6일 대천구학부가 적발되어 24명의 범인들이 체포되었다. 시내의 호화주택 등에 거점을 둔 범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여성들이 매춘에 나서도록 조르기도 한다.

일본사회의 인권실상은 위에서 언급된

파멸을 더욱 가속화하는 어리석은 발악

남조선인민대중신문 《민족일보》가 23일 《자유한국당》에 대해 할 수 없는 불능의 나침반을 던진다는 제목으로 권력싸움을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였다.

신문은 22일에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들의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에 대한 비난공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세력을 두둔하며 스스로 약세세력임을 입증하는 반역적정당인물이 판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토론회는 당운영에 대한 정당승인 의의소용이 없는 나침반주식비난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한다 대대 우려

유엔환경계획이 27일 보고서 발표하여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하는데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전년에 비해 7억 톤 더 늘어나 535억 톤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최고기록

이라고 한다. 기구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증가하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내성들의 지위를 높이고 낙후정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사망자 날로 증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사관들중에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있다. 27일까지 3명이 죽고 4명이 부상당하였

다. 2001년에 이 때까지 이 나라에서 미군사망자는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도이칠란드 기업체들 기술자부족난에 직면

도이칠란드의 경제연구기관이 28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체들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

자가 부족하여 애를 먹고있다. 10월에 부족한 기술자들의 수는 33만 7900명에 달하여 지금까지의 최고를 기록하였다

한다.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단절되어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당국에 요구하고있다.

경제 발전 성과

나노 위성 발사

중국이 20일 위성발사센터에서 4개의 나노위성을 발사했다. 《장정-2호》운반로켓에 실려 발사된 위성은 주로 우주항천정확도와 관련기술시범 등에 이용된다고 한다.

환경보존대회 발표

라이정부가 27일 관광자들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은 2020년까지 관광지들에 내버려지는 1회용 플라스틱, 일회용 컵, 일회용 플라스틱 등 각종 오물을 50% 줄일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정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150개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관광지들에서 수거용기를 비롯한 분해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석탄수출 증대

몽골에서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석탄수출량이 3130만 톤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된 것이라고 최근 이 나라 국가통계국이 밝혔다.

감출수 없는 광주대학살범의 정체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 당시 적위단역도 대학살당했다를 직접 계획하고 두차례에 걸쳐 점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남조선의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지난 11월 22일 역사자료로 미국부서 비밀전통 등을 토대로 하여 전투원역도 그 전후에 용납 못할 죄행을

역도는 1980년 5월 25일 국방부내의 공권기관에서 회의 를 열고 광주인민봉기참가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작전계획을 결정하였다.

다음날 전투원역도는 특전사령관 등을 보안사령부로 불러내어 이 학살작전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 결정했다고 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당시 미국부장관평의의 비밀전통에도 광주대학살안

사회악이 빚어낸 비참한 현실

권익은 총기류범죄

미국의 시카고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19일 총격사건이 발생하여 3명이 목숨을 잃고 의사들과 환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플로리다주의 덴버시에서도 류혈적인 총기류 범죄로 5명의 사망자가 났다. 또한 미국 알라바마주의 한 상점에서도 23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에 있는 총기류범죄로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한편 프랑스의 동남부지역에서 22일 무장범죄자들이 2명의 장애인에게 마구 총사격을 가하여 살해하였다.

이 나라의 BFM TV방송은 총격사건이 마약밀착점들보다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21일에도 그 지역에서는 미약

밀매범죄자들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5명의 사상자가 났다. 가장폭력형의 우심

그리스에서 가장폭력형의 우심하게 나타났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합의에 의한 총격을 들어야 11월까지 전국적으로 공식 신고된 가장폭력형 사건수가 약 5090건에 달하였다. 한편 도이칠란드에서도 지난해에 공식 신고된 가장폭력범죄가 13만 890여건에 달하였다. 20년 이 나라 정부는 가장폭력범죄로 18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실업자 증대

영국에서 9월에 실업자가 7월에 비해 2만 1000명 더 늘어난 138만명에 달하였다. 13월 이 나라 중앙은행이 밝혔다.

정치적압력과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여

로씨야의무성 회의에서 라브로프가 최근 회담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정치적압력들을 비난하였다.

그는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로씨야에 대한 압력은 압력이 앞으로 더욱 계속될것이라고 하면서 그 목적은 로씨야의 대규모회사를 밀어내고 중국에는 로씨야의 사회경제발전을 억제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협과 최후통첩은 이미 미국의 《명확함》으로 되었으며 미국은 로씨야뿐만아니라 자기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명확함》을 내내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씨야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외무성 부상 알렉산드르 그루슈코프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여전히 저들의 가스통 유럽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정치적압력수단에 메달리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가스분야뿐만아니라 기타 분야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반외무성 대변인이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가 화확기구기술협약을 위반하였다는 미국의 비난을 배격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화확기구기술기구 기술협약준수에서 화확기구기술협약을 가지고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 미국은 화확기구기술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화확기구기술을 비호하면서 이란을 반대하는 그로프도 무관한 비난권을 버리고있다고 강조했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의 총비서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부당한 점진적인 배격을 비난하였다. 성명은 미국이 유엔총회에 팔레스티나에 압력협약준수(하마스)를 비난하는 점진적인 배격을 비난하며 이 점의 비난이 이스라엘의 폭력행위를 비호하고 사살을 전도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비법적인 정경과 유대인정착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현지 주민들에게 그것을 헌신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봉쇄를 실시하며 강제적인 체포와 종속수령을 버리고있다고 성명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처사에 국제공중재가 반격을 가할것을 호소하였다.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

남조선인민대중신문 《통일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1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요청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요청회에 16만 2000여 명이 참가했다. 그중 5.2%는 추산부문에서, 4.8%는 의료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 5만여 명의 학생운동들이 도량과 수원지 등에 올라탔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있는 강하천들의 오염상

리사장은 《회해, 치유제단》의 해산이자 곧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주요선언이라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일본정부는 억지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지난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해어줄수 없는 고통을 가한 조상에배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참가자들은 일본정부에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각종 학생운동들을 참가하고있는데 어떤 맥이에서는 10여가지의 학생운동이 접속되었다. 또한 학생들을 많이 사용하는 치료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크게 호응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하여 많은 리용을 쓸수 있는 리용하고 있다.

대는 보다 심각하다. 다른 나라들과 대비하여 볼 때 이 나라의 강하천들에 함유된 학생운동의 농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원천은 생활오수, 병원들에서 나오는 오수, 풍물놀이, 수산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이다. 그중에서도 양식양식에서의 학생운동이 주요 오염원이라고 된다고 한다. 일부 폐지공장들에서

월간 국제 정세 개관

11월의 정세 흐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북집단단란 11월이 흘러갔다. 이월엔 여러 나라들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무역전쟁이 일기를 띄고 밀려왔다. 이월 7일 미상무성은 중국산 알루미늄제품에 반부패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미국 기업들을 불공평한 무역에서 제외하기 위해 위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과우아 뉴기니에서 열린 아메리칸수뇌자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사이의 모순이 강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중국이 외국인 수입통제를 엄정한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장벽을 조성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자국의 보복관세부과 약속을 2배이상 확대할수 있다고 하면서 무역전쟁에서 먼저 물러서지 않을 방침을 명백히 밝혔다.

한편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와 시장주의가 세계적인 경제장성을 위협하고있다고 미국을 공격하였다.

미정부는 중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서 제명시키겠다는 의사가

로씨야대통령 품모반은 미국의 조약탈취로 전략적균형이 파괴되는 경우 자국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해양한 행동을 취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일 이란의 에너지와 은행 등의 분야에 대한 제재를 재가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란핵협약에 따라 해제되었던 내외관제까지 전면적으로 재개되었다.

이란-미국관계는 더 복잡해졌다. 이란은 자기 나라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꿈이 절대로 실현되지 못할것임을 확실히 표명하였다.

분쟁가운데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의 압박정책을 한사코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이란이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동시 제재에 반기를 들고 나갔다.

로씨야에서는 데이리안제토 국제적인 대거연습이 이란에서 떠나기도 자국은 이란과 맺은 합의에 따라 원유와 상품의 거래를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튀르키예대통령은 미국이 강요하는 제재준수를 반대하면서 제국주의세계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며 이라크수사도 이러한 데에 대한 제재행위를 거부하였다.

서유럽나라들과 미국사이의 모순도 악화되었다.

프랑스, 도이칠란드, 영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여 이란과의 합법적인 무역활동을 계속할수 있는 《특수목적기구》창설을 준비하고있는데 대하여 공개하였다.

안전문제에서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유럽나라들이 독자적인 유럽관정립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프랑스대통령은 미국과 기타 나라들로부터 유럽인들을 보호 할 진정한 유럽군을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이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였다.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관계가 지난 시기에 비합법적이 평명하였다.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행위와 명도행위들이 국제에 이르렀다. 그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이와 함께 각종 학생운동들을 참가하고있는데 어떤 맥이에서는 10여가지의 학생운동이 접속되었다. 또한 학생들을 많이 사용하는 치료효과를 빨리 볼수 있는것으로 하여 크게 호응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해 하여 많은 리용을 쓸수 있는 리용하고 있다.

대는 보다 심각하다. 다른 나라들과 대비하여 볼 때 이 나라의 강하천들에 함유된 학생운동의 농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원천은 생활오수, 병원들에서 나오는 오수, 풍물놀이, 수산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이다. 그중에서도 양식양식에서의 학생운동이 주요 오염원이라고 된다고 한다. 일부 폐지공장들에서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크 큰 들

이라크의 알라딘주에서 23일 무더기비에 의한 분물이 쏟아져 피해가 났다. 이날 주경향당국은 분물이 주의 북부에 위치한 여러 마을을 침몰해 7명이 목숨을 잃고 여러명이 행방불명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자에 나왔다고 밝혔다.

25일 이라크전부는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분물에 의한 사망자가 17명으로 증가하였으나 부상자수는 17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 진

이란의 케르만샤주에서 2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26일 현재 부상자가 약 730명에 늘어났다. 지진발생후 리히터로 2.2, 4.5, 2의 여진이 200

자녀나 일어났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주일 넘었던 기간 불꽃이 계속되어 수십만 가구를 불태웠다. 8일에 발생한 불꽃로 23일 현재 사망자가 84명으로 늘어나고 15만 3300여ac(에이커)의 초원이 불타버렸으며 1만 8000여채의 건물이 파괴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자연피해

이탈리아에서 자연피해

이탈리아에서 자연피해